

‘ 짹 ’ 제작진 다시 뭉쳤다 ‘ 스트레인저 ’ 14일 첫방



연애 예능 ‘스트레인저’

연애 예능프로그램의 대명사 ‘ 짹 ’의 제작진이 다시 뭉쳤다. SBS 출신 남규홍 PD 등 연출자와 스태프가 새로운 연애 예능프로그램을 14일 선보인다. 스카이티브이의 예능채널 NQQ와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가 공동 제작해 이날 밤 10시30분 첫 방송하는 ‘ 스트레인저 ’이다.

‘ 스트레인저 ’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SBS가 방송한 ‘ 짹 ’의 새로운 무대이다. ‘ 짹 ’은 복수의 비연예인 출연자들이 각각 ‘ 남자 ○ 호, 여자 ○ 호 ’라 불리며 ‘ 애정촌 ’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짹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 인기를 모았다. ‘ 스트레인저 ’는 이 같은 형식을 새롭게 바꿔 12명의 남녀가 각자의 성씨로 보이는 한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제외하고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사랑과 연애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심리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남규홍 PD는 “ 사랑에만 집중하기 위해 특별한 만남을 갖는 12명의 남녀 이야기로, 사실적인 과정을 담아낼 것 ”이라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블랙핑크, 유튜브 뮤직 차트 3관왕

걸그룹 블랙핑크가 글로벌 유튜브 뮤직 차트 3관왕을 차지했다. 11일 유튜브가 발표한 최신 차트(2일~8일 집계)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2일 내놓은 첫 정규앨범 ‘ 디 앨범 (THE ALBUM)’의 타이틀곡 ‘ 러브식 걸즈 (Love Sick Girls)’로 ‘ 글로벌 유튜브 송 톱100 ’을 비롯해 ‘ 가장 많이 본 뮤직 비디오 ’, ‘ 최고 아티스트 ’ 부문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공개 직후 미국 등 5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이들은 10일 영국 오픈 앨범 차트에서 2위에 올랐다. ‘ 러브식 걸즈 ’로는 싱글 톱40 차트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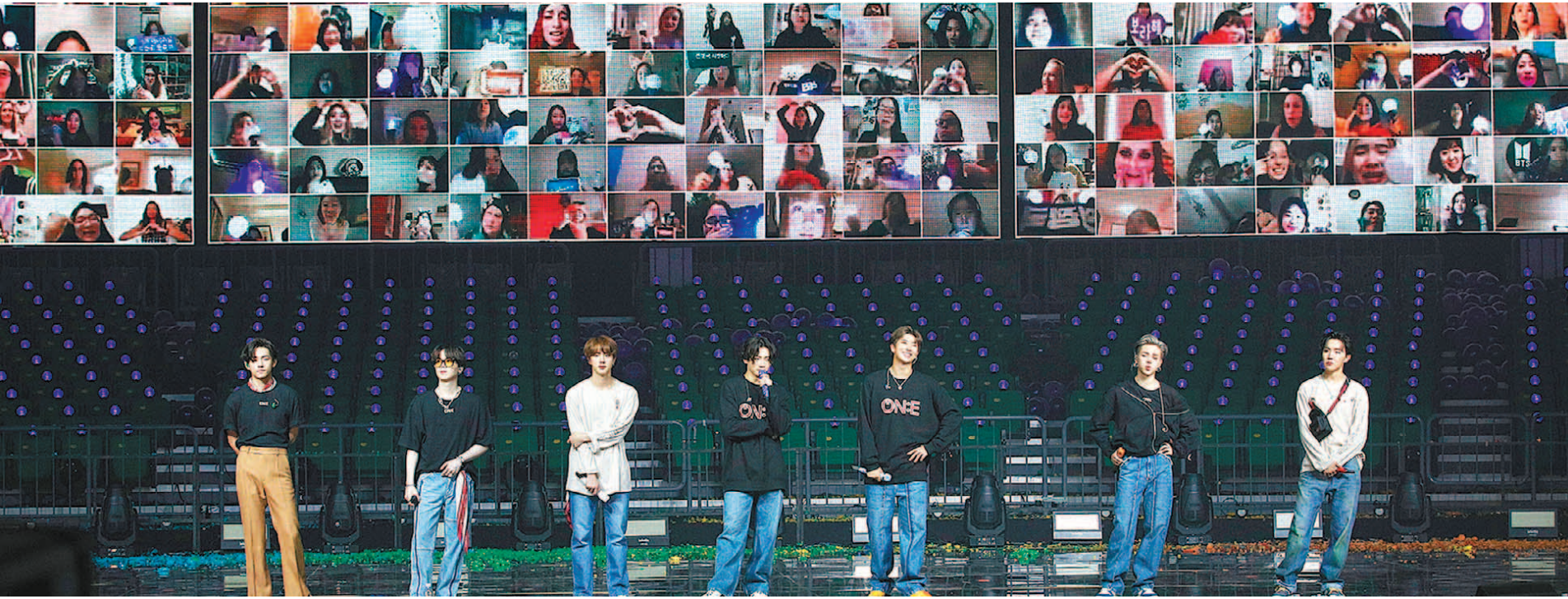
트와이스, 팝스타 두아 리파와 협업

걸그룹 트와이스가 팝스타 두아 리파와 손을 잡았다. 11일 정규 2집 ‘ 아이즈 와이드 오픈 (Eyes wide open)’ 트랙리스트를 공개한 트와이스는 수록곡 ‘ 비하인드 더 마스크 (Behind the Mask)’로 두아 리파와 협업했다. 두아 리파는 2015년 데뷔해 현재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적 팝스타이다. 걸그룹 블랙핑크, 마마무의 화사 등 케이팝 스타들과도 작업했다. 트와이스는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할시 등과 협업한 작곡가 펠라니 조이 폰타 등도 합류시켰다. 지효, 다현, 사나, 나연, 채영 등도 다양한 노랫말을 썼다. 이들의 2집은 26일 선보인다.

영화 ‘ 담보 ’, 전국 누적 관객 100만 돌파

하지원 주연 영화 ‘ 담보 ’가 전국 누적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 담보 ’는 10일 현재까지 전국 1300여개 스크린에서 누적 116만 3838명을 불러 모았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9일 개봉한 ‘ 담보 ’는 하지원과 성동일·김희원이 주연해 두 사채업자가 아홉 살배기 아이를 맡아 키우며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다. ‘ 담보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극장 관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9월 이후 개봉작 가운데 유일하게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온라인 콘서트 ‘ 맵 오브 더 솔 원 ’서 세계 팬들 만난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10일과 11일 온라인 통해 콘서트 ‘ BTS 맵 오브 더 솔 원(BTS MAP OF THE SOUL ON:E)’을 펼쳤다. 사진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온라인 화상을 통해 팬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 팬들 앞에서 춤추고 싶다 ”…BTS의 약속

10·11일 2화…2시간40분 공연 AR·XR 등 첨단기술의 향연 팬들과 모니터로 ‘ 뜨거운 소통 ’

“ 여러분이 아는 방탄소년단(BTS)과 우리가 아는 ‘ 아미 ’(팬클럽)는 문자 그대로 강하다. 길이 없다면 지도를 그려보자. 늘 그랬듯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또 연결되어 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멈출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믿자. ”

단 하나의 콘서트, ‘ ON:E ’,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한번 온라인 콘서트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전 세계 팬들과 하나가 됐다. 이들이 10일과 11일 온라인 콘서트 ‘ B TS 맵 오브 솔 원(MAP OF THE SOUL ON:E)’을 펼쳤다. ‘ 코로나19 시대 ’의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출력을 과시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설치한 대형 무대는 6월 첫 온라인 콘서트 ‘ 방방콘 더 라이브 ’(방방콘)보다 8배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했다.

사실 이번 콘서트는 “ 단 하나(ONE)뿐인 온라인 에디션(ONLine Edition)”이라는 의미로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스트리밍을 동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감염병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됐다.

● AR·XR·멀티뷰 등 첨단기술 총동원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투어를 다니는 이들이인 만큼 1년 만의 콘서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들의 마지막 투어는 지난해 10월말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펼친 ‘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더 파이널 ’이다.

이번 콘서트는 방탄소년단이 7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자신들의 음악적 커리어를 한눈에 확인시킨 무대였다. 2013년 데뷔곡 ‘ 노 모어 드림 ’부터 2015년 팬덤 확장의 기반이 된 세 번째 미니음반 ‘ 화양연화 pt.1 ’의 수록곡 ‘ 썬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67위를 기록하며 ‘ 빌보드 입성 ’의 가능성을 입증한 2017년 다섯 번째 미니음반 ‘ 러브 유어셀프: 승 허 ’ 타이틀곡 ‘ DNA ’ 등을 부르는 사이 전매특허인 ‘ 칼

군무 ’는 시쳇말로 ‘ 그저 거들 뿐 ’이었다.

솔로나 둘, 셋씩 멤버들의 개성을 살려 꾸민 무대도 돋보였다. 이들은 160분간 앙코르곡까지 모두 24곡을 쉬지 않고 무대를 뛰어다녔다.

그 사이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을 이용한 화려한 볼거리가 무대 곳곳을 채웠다. RM의 솔로 무대인 ‘ 페르소나 ’에서는 ‘ 거인 RM ’을 3차원(3D)으로 구현해 실제 RM과 눈을 맞추는 장면을 연출했다. 거대한 철창 엘리베이터를 본뜬 가상무대나 설원, 사막, 물 속에서 움직이는 홀로그램으로 새롭다. 멤버들은 “ 콘서트를 하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새삼 느낀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힘이 난다. 이번 공연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7년의 시간과 고민, 진솔한 이야기를 녹여 준비했는데, 느껴진다. 7년 동안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며 눈물을 흘렸다.

● “ BTS ” “ BTS ” 1년 만의 환호… “ 너무 그리웠다 ”

이번 콘서트는 멤버들에게도, 팬들에게도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 방방콘 ’이

채팅으로만 소통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콘서트를 관람하는 세계 곳곳 팬들의 모습이 담긴 모니터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둘러싸 서로 눈을 맞출 수 있었다. 사전 이벤트 응모를 통해 당첨된 인원을 카메라가 랜덤으로 비추며 최대한 많은 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팬들은 연신 “ BTS ”를 외쳤다. 아미밤도 실제 콘서트장에서처럼 색깔이 실시간으로 바뀌었다.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 중 하나다. 무대 중간 중간 분위기에 맞춰 팬들의 함성도 터져 나왔다. 현장감이 그대로 전해졌다.

“ 이번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아미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나게 됐다. 이런 합성을 거의 1년 만에 들어본다. 너무 그리웠다 ”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 비대면 공연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어 80%는 좋고, 직접 눈을 마주치며 소통할 수 없어 20%는 아쉽다 ”고 인사했다. 이어 “ 팬들이 진짜 보고 싶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 함께 스타디움에서 뛰어노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다 ”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 환불원정대 ’ 차트 올 킬… ‘ 놀면 뭐하니? ’가 하면 대박

신곡 ‘ 돈 터치 미 ’ 음원차트 1위 연오피셜 뮤비도 ‘ 95만 뷰 ’ 돌파

‘ 놀면 뭐하니? ’의 새로운 도전이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 놀면 뭐하니? ’를 통해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환불원정대가 10일 데뷔하자마자 각종 음원차트를 휩쓸고 있다. 같은 무대로 한 발 앞서 활동한 혼성그룹 싸쓰리에 이어 ‘ 차트 올 킬 ’에 성공하면서 이들이 새롭게 거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환불원정대의 신곡 ‘ 돈 터치 미 ’(Don’t Touch Me)가 11일 현재 각종 음원사이트 실시간 음원차트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다. 빌보드를 접수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도 제쳤다. 방탄소년단의 ‘ 다이너마이트 ’, 블랙핑크의 ‘ 러브식 걸즈 ’와 음원차트 정상 자리를 두고 엮히락뒤치락 치열한 ‘ 1위 쟁탈전 ’을 벌인 성과이다.

이들의 남다른 ‘ 화력 ’은 온라인에서도 확인된다. 제작진이 임시로 내놓은 ‘ 연오피셜 뮤직비디오 ’를 유튜브에서 공개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95만 뷰를 가뿐히 돌파했다.

영상은 멤버인 만옥(엄정화), 천옥(이효리), 은비(제시), 실비(화사)가 노래를 녹음하는 과정을 담았다. 애시청자들은 음원 공개 직후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해 응원 문구를 연이어 올리는 ‘ 해시태그



엄정화·이효리·제시·화사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환불원정대가 ‘ 매니저 ’ 김종민·유재석·정재형과 함께 MBC ‘ 놀면 뭐하니? ’에서 활약하고 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제공 | MBC

이벤트 ’를 벌이면서 이들의 활약에 힘을 보탤다.

환불원정대의 선전은 ‘ 놀면 뭐하니? ’가 올해 여름 선보인 혼성그룹 싸쓰리의 흥행으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가수 비와 이효리, 방송인 유재석이 뭉친 싸쓰리는 7월18일 내놓은 ‘ 다시 여기 바닷가 ’ 등 활동곡을 최근까지 음원차트 30위권 안에 포진시켜 ‘ 놀면 뭐하니? ’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3년 만에 가수로 복귀한 엄정화의 무대

도 대중의 호기심을 잡아끈 요인 중 하나다. 엄정화는 “ 10년 전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후 성대가 완전히 낫지 않았다 ”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노래를 녹음해 시청자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

‘ 놀면 뭐하니? ’는 17일 방송부터 이들이 본격적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후 뮤직비디오와 음악방송 무대 등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음원 수익은 올 해 말 기부처를 결정해 전액 기탁할 예정이다. 유재현 기자 yjh0304@donga.com

‘ 사랑의 불시착 ’ 김정현 31일 온라인 팬미팅



김정현

김정현이 31일 일본 온라인 팬미팅을 연다. 올해 2월 막을 내린 tv N 드라마 ‘ 사랑의 불시착 ’이 발판이 됐다. ‘ 사랑의 불시착 ’이 국내 중영과 함께 일본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현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덕분이다. ‘ 사랑의 불시착 ’은 11일 현재까지 현지 ‘ 많이 본 콘텐츠 ’ 3위를 차지하며 최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정현은 극중 영국 국적의 사업가로, 공공 명령 혐의로 수배돼 북한으로 날아간 인물. 재발가 상속에 손예진을 북한에서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다 북한 상류층 서지혜를 만나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시청자 시선을 모았다. 극중 자신의 캐릭터 이름인 ‘ 구승준 ’과 서지혜의 인물명 ‘ 서단 ’을 조합한 ‘ 구단 커플 ’이라는 별칭도 만들어졌다. 2015년 영화 ‘ 초인 ’으로 데뷔했지만 섭식장애 등 갖은 아픔을 겪으며 성장한 그는 이처럼 ‘ 사랑의 불시착 ’으로 국내외에 얼굴과 이름을 새롭게 알렸다.

이번 일본 팬미팅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여는 무대다. 특히 ‘ 사랑의 불시착 ’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않고도 현지 팬들의 눈도장을 받고 향후 활약을 기대하게 하는 도약대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윤여수 기자